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현 공동대응

오늘까지 제주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 개최
전북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특례 발굴 필요성 설명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가 16~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리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세종·강원·제주교육청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꾸렸다. 이는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특례안, 관련 부처 대응 상황, 설득 전략 등을 공유했다. 특히, 교육자치 확대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교육감 의견 제출권 부여 △중복 감사 배제 특례 등을 집중 논의해 향후 추진 방향을 집중 모색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제출한 교육분야 특례를 설명하고,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특례 발굴 필요성을 설명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정기회는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교육 특례 발굴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교육특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청 간 연대로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가 16~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미래 과학 동량 146명 수료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에서 지난 1년 간 과학영재의 꿈을 키운 146명의 미래 과학 동량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지난 14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수료식에서는 초등심화과정 52명, 중등심화과정 63명, 중등사사과정 31명이 수료했다.

심화과정 학생들은 SW코딩, 인공지능(AI) 실습,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간 100시수 이상 이수하며 창의적 과학 인재로 성장했다.

특히 사사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80시수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 형식으로 과학적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을 미래 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유아교육과

학생 2명 장학금 시상

전주기전대 유아교육과 재학생 2명이 장학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과 2학년 이가은 학생은 사단법인 개벽장학회 장학생으로, 3학년 유송희 학생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장학생으로 각각 선정됐다.

개벽장학회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 우수 학생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 채용박람회

전주비전대학교 취업처에서는 16일 행복기숙사 2층 컨벤션홀에서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주시가 지역대학, ICT·전기 관련 기업들과 함께 추진 중인 2024년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의 연계 행사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박람회에는 ICT·전기 관련 24개사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기업 현황과 기업의 인재상, 복지후생 제도 등 채용정보를 홍보하고, 직원 채용을 위한 현장 모의 면접 등을 진행했다.

올해 전주비전대학교가 운영대학으로 선정, 컴퓨터정보과·전기공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실무 등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총 8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재학생 전원에 총 3,200만원의 학업장려 장학금을 수여했다.

재학생 전원에 학업장려 장학금 수여

전주대 산업공학과, 46명에 총 3200만원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재학생 전원에 총 3,200만원의 학업장려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은수 공과대학장을 비롯해 학과 교수 및 기업체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공학과 재학생 46명 전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은수 공과대학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더욱 더 힘내서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산업공학과 2학년 현지혜 학생은 "산업공학과 교수님들께서 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한 발전기금을 학업 장려 장학금으로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해 사회의 멋진 일원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호연 학과장은 "이번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됐지만, 산업공학과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산업공학과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산업공학자를 양성해 지역 산업체와 국내 굴지의 기업에 양질의 산업 역군을 공급해 왔다. 현재 전북테크노파크의 후원을 받아 지능형 기계 부품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oT,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기반의 산업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존 산업의 전환기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디지털 융합 컨소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성료

전주대-고려대 HUSS사업단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용욱, 이하 전주대 HUSS사업단)은 고려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정병호, 이하 고려대 HUSS사업단)과 공동 진행한 '지역-디지털 융합을 위한 컨소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대와 고려대 HUSS사업단의 강점을 결합해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인재 양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생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연으로 기획됐다. 이에 학생들은 '독일의 대학과 지역 사회'(김용현, 고려대 독문과), '역사 실천으로서의 공공역사와 지역학의 방향'(정호섭, 고려대 한국사학과) 등의 주제를 통해 지역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학문적 역할을 탐구했다.

또한, 지역 시민을 위한 강연에서는 '생성형 AI와 초지능시대, 인문학의 역할'(이용욱, 전주대 한국어문학창작학부)과 '한국과 일본의 재난을 둘러싼 문화적 형상화'(정병호, 고려대 일



어일문학과) 등 지역과 디지털을 아우르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다양한 시각에서 학문을 접하고, 나아가 두 학교의 협력으로 새롭게 구성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 HUSS사업단은 전북대학교 연구의 기반이 될 출판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지역 혁신 가치를 제안하고자 오는 19일 '전북 미래까지' 창출을 위한 지식혁신 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 관한 안내는 사업단 홈페이지(www.jiac.kr/huss)와 인스타그램(@jhu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내 초등교사 5명,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

교육부 올해 첫 신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아... 지속적 수업혁신 노력 결과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에서 도내 초등교사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상으로, 수업 혁신 공적이 탁월한 교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현장의 자발적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함께 학교'를 통해 신청받아 철저한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총 98명(초등 50명, 중등 48명)을 선정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초등 수업혁신 분야에서 서울, 경기도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수상자로는 김민지 전주효천초 교사, 김성은 군산초 교사, 노운 남원월락초 교사, 신수연 아영초 교사, 강대호 번암초 통화분교장 교사, 김혜원 지평선중 교사 등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수업혁신'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개념 기반 탐구수업 연구와 자료 개발, 수업 공개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한 결



교육부가 주최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 수상자와 서거석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등교사 300여 명이 참여하는 수업혁신 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개념 기반 탐구수업 270여 개 단원을 자체 개발해 수업 모델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내 15개 초등학교를 '개념 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130여 회의 공개수업을 진행해 1,3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5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수상자들에게 교육부장관 표창과 상금을 전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도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향한 헌신적 노력과 교육청의 지속적인 수업혁신 지원 사업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의 수업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협동조합 9개 대상학교 사례 공유

전북교육청, 성과공유회 개최

올 첫 개최... 교육감 표창 수여

조합원 역량 강화 위한 특강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학교협동조합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전라중학교 '생그레'와 지평선고등학교 '너함' 등 도내에서 운영 중인 9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거둔 교육적 가치와 효과 및 특색 있는 활동들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성과공유회는 학교협동조합 유공자 교육감 표창(전라중학교 교사 김상규) 수여, 도내 학교협동조합의 성과공유,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 및 학교협동조합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대, 모로코 카디야아드대학서 입학설명회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참여... 대학 간 학술교류 등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2일 모로코의 자매결연대학인 카디야아드대학을 방문해 공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카디야아드대학 공과대학에서 열린 입학설명회에는 50여 명의 모로코 학생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전북대의 입학 절차, 장학금 제도, 기숙사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양



대학 간 학술교류와 공동 연구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 조희민 국제처장은 "카디야아드대학과는 2016년부터 긴밀히 협력

해왔다. 당시 초청한 9명의 학생이 전북대 석사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일부는 국내 기업에 취업해 한국에 정착했다"며 "모로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이번 카디야아드대학 방문 외에도 이븐토파일대학, 모하메드5세대학, 주모로코한국대사관, 모하메드6세과운대이션 등을 방문하며 모로코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